

# Japan Weekly Digest

2012. 1. 21. ~ 2012. 1. 27

☐ 금주의 이슈

- 일본의 무역적자구조 정착 가능성과 통상정책

☐ 일본기업전략

- 일본 종합상사, 남미에서 곡물조달 확대
- 신에츠화학, 베트남에 희토류 가공거점 신설

☐ 경제산업성 동향

- 건물 절전비용, 국가에서 절반 보조
- 경산대신, 예술·문화 비즈니스 지원
-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미·일간 통상원칙 발표

☐ 보고서 리뷰

- 『일본 제조업기업의 해외사업 전개에 관한 조사보고』  
해외투융자정보재단, 1월26일



**대한한일경제협회**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 자료제공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http://www.kje.or.kr>)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사오며,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02-3014-9888)

## ◆ 금주의 이슈

### □ 일본의 무역적자구조 정착 가능성과 통상정책

- 25일 재무성 발표에 의하면 작년 일본의 무역수지가 31년 만에 2조 4,900억 엔의 적자를 기록, 적자구조의 정착가능성 및 통상정책 향방에 관한 논의가 일고 있음
- 무역적자구조의 정착에 중요한 요인으로 △에너지 원료 수입, △수출 부진 △역 수입 증가 등 세 가지를 들고 있음.
- 에너지 원료 수입은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소비량이 늘어 줄어들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은 수입증가로 직결
  - 향후 원전 정지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상승으로 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증가가 예상됨
- 무역적자에서 문제되는 것은 역수입과 수출입. 엔고가 아니더라도 일본기업들의 해외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생산으로 인한 수출 대체효과, 역수입 효과 등으로 무역수지가 축소되게 되고, 여기에 엔고 요인까지 계속 가세할 경우 무역수지 축소효과는 더욱 커지게 됨
  - 수출을 이끌어 온 자동차와 전기 분야는 이미 무역구조가 크게 바뀌고 있음. 자동차는 نيسان자동차와 미쓰비시자동차의 주력 차종의 생산거점이 태국, 멕시코로 이전, 일본으로 역수입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전기 분야에서도 대만, 중국기업에 위탁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2011년에도 2년 연속 가전의 순수입국임
  - 2011년 1/4분기 중 일본기업의 해외현지법인에서 역수입한 금액은 2.2조 엔으로 과거 최대
- 일본은 수출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수출확대가 가능하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는 신흥국들의 추격과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발상전환 없이 단순 개선 등과 같은 이제까지의 방식 및 그 연장선상에서는 수출확대에 한계가 있음
- 1980년 이후, 두 번에 걸쳐 일본의 무역수지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적이 있었는데, 두 번 모두 수출확대를 통해 흑자를 회복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일각에서는 수출확대에 기대를 걸고는 있음
- 그러나 일본의 무역적자화와 관련, 일본경제신문은 사설을 통해 일본의 통상정책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즉 해외직접투자 및 M&A로 세계시장을 공략하는 동시에 일본 내에서는 고부가가치 제품의 창출에 노력 하는 한편,
  - 일본정부는 제품의 수출을 중시하는 과거형의 정책이 아니고, 성장 센터인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일본의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통상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

## ◆ 일본기업전략

### □ 일본 종합상사, 남미에서 곡물조달 확대

- 미쓰비시상사 등 일본의 대형 종합상사들이 남미에서 곡물조달을 확대. 미쓰비시상사는 브라질의 농산물유통기업에 20%를 출자, 브라질 최대 가공식품기업과 조달업무 분야에서 제휴
- 마루베니 역시 현지 유통기업 매수 등, 조달물량을 60% 확대. 인구증가와 경제발전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곡물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공급거점으로서 남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일본의 5개 종합상사들이 남미로부터 조달하는 곡물량은 2015년 2,200만 톤으로 지금의 두 배가 될 전망. 일본 총수입량의 3/4에 해당하는 곡물을 확보하여 신흥국의 수요에 대응하고 일본에도 안정적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임

### □ 신에츠화학, 베트남에 희토류 가공 거점 신설

- 일본 신에츠화학(信越化学)은 하이브리드자동차(HV)에 사용하는 희토류의 가공거점을 베트남에 건설, 폐자석 및 광석에서 희토류를 분리·정제하여 2013년 가동
  - 희토류 자석 분야에서 세계 제 2위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동사는 희토류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나, 가공 거점을 늘려 조달리스크의 경감하여 자석의 안정적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신에츠화학이 희토류의 가공거점을 해외에 설립하는 것은 최초. 베트남의 하이퐁 공업단지에 약 20억엔을 들여 건설, 8만평 규모로 연간 1,000톤 처리
  - HV 및 HDD등에서 회수한 폐자석이나 자석공장에서 발생한 파재를 들여와 네오ジム이나 지스프로숨을 분리·정제하여 자석원료로 재활용
- 희토류는 현재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90%를 장악하고 있는데다, 희토류의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가격이 급등. 이 때문에 에너지절약형 에어컨 등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조달리스크가 커지고 있음
  - 베트남에서 최근 유망한 희토류 광산이 확인되고 있고, 동남아시아의 HDD공장에서도 폐자석을 회수하기 쉬운 이점도 있음
- 신에츠화학은 발광 다이오드(LED)용 재료공장도 베트남에 건설할 계획. 약 30억엔을 투입, 2013년 3월 가동을 목표. 동남아시아에서 LED가공 거점을 늘려 인건비 등 비용절감을 위해 베트남을 주요 생산거점으로 활용한다는 전략

## ◆ 경제산업성 동향

### □ 건물 절전비용 국가에서 절반 보조

- 경제산업성은 여름철 전력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건물의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에게 최고 비용의 절반까지 보조해주는 제도를 마련. 우선 7월까지 5,000동에 보조, 2년간 15,000동으로 확대. 최대사용전력을 올 여름에는 약 30만kw, 내년 여름에는 90만kw로 억제할 목표
- 일본정부는 올 여름에는 강제적인 절전을 지양하여 주택의 에너지절약형 보수나 축전지 도입도 지원할 계획
- 절전시스템도입 지원은 건물의 전력사용을 계측기나 IT로 파악, 전력사용량이 증가하면 공기조절을 제어하여 절전하는 방식. 이른바 BEMS라 불리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으로 최대사용량을 10~15%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 경산대신, 예술·문화 비즈니스 지원

- 에다노 경산대신은 25일 일본 영화감독협회 이사장 등 영화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 에다노 경산대신은 모두 발언에서 문화·예술은 세계적인 비즈니스로 지원이 가능, 지혜를 빌리고 싶다고 하면서 약1시간에 걸쳐 의견을 청취
- 영협 이사장은 영화·음악·콘텐츠 창조 기반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화감독이나 각본가 등 저작권 보호나 인재육성 지원 등을 요구. 영화 등을 해외로 수출, 큰 시장을 확보한다는 방향성에서 공조기로 함

### □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미·일간 통상원칙 발표

- 일본은 27일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분야에서 일본기업들의 해외사업지원을 목적으로 미국과의 ICT서비스에 관한 통상원칙을 합의, 공표
- 미·일간 통상원칙은 2010년 11월 미·일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미·일경제조화대화」에 근거, ICT서비스 분야에서 규제의 투명성 확보를 비롯하여 무역촉진 관련 시각 및 접근방법을 공유하고 다른 국가에 영향력 행사 등 공동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통상원칙에는 ▷투명성, ▷미·일간 정보유통, ·오픈 네트워크의 접근 및 이용, ▷상호접속, ▷네트워크 구성요소의 세분화, ▷현지 기반 및 거점, ▷외국소유, ▷전파의 스펙트럼 이용, ▷디지털 프로젝트, ▷규제당국, ▷허가 및 면허, ▷국제협력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

## ◆ 보고서 리뷰

### 『일본 제조업기업의 해외사업 전개에 관한 조사 보고』

해외투융자정보재단, 1월26일

- 이 자료는 일본해외투융자재단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 양케이트 조사 결과(2001년도)중 우리 기업 및 정책당국에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으로 응답 기업은 603개임
- 해외생산비율
  - 일본기업의 해외생산비율은 2001년 24.6%에서 2010년 33.2%, 2011년에는 34.2%,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 해외수요형 산업인 전기·전자가 53.7%로 가장 높음
- 유망 해외생산 국가
  - 상위 6개국 투자 메리트(중요도 순)
    - 중 국 : 현지시장의 규모 및 향후 성장성, 저렴한 노동력, 조립메이커에 대한 공급거점
    - 인 도 : 향후 현지시장의 성장성, 저렴한 노동력, 현지시장의 규모, 우수한 인재
    - 브라질 : 향후 현지시장의 성장성 및 규모
    - 태 국 : 향후 현지시장의 성장성, 제 3국 수출 거점, 현지 인프라 정비
    - 베트남 : 향후 현지시장의 성장성, 저렴한 노동력, 우수한 인재
    - 인도네시아 : 향후 현지시장의 성장성
  - 상위 6개국의 과제
    - 태국을 제외한 5개 유망국가의 진출 과제로 현지시장의 인프라가 정비되어 있지않은 점을 들고 있으며, 특히 경제성장 속도에 인프라 정비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문제라고 지적
- 해외인프라 사업
  - 응답 기업의 30%가 해외 인프라정비를 절호의 사업기회(business chance)로 인식하고 있음
  - 관심분야는 ▷재생가능에너지(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및 태양열 발전, ▷물 관련 비즈니스(하수, 상수, 해수담수화 등)임

## □ 시사점

-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기업들은 국내시장이 불투명한 가운데,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시장의 성장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해외사업을 가속화시키고 있음이 조사결과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음
- 투자 유망 국가 중 태국, 인도네시아는 생산거점으로서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시장으로서도 매력이 커지고 있는 등 유망성이 부각
-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세계적으로 대형인프라 정비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들 국가와 협력, 설비의 운영·관리·보수 등을 포함한 패키지형 해외 인프라 사업에 진출하는 전략이 중요

## 【금주의 일본 주요 보고서】

- (1) 『무역적자국으로 전락은 비극인가』 제일생명경제연구소, 1월27일

\*출처:[http://group.dai-ichi-life.co.jp/dlri/kuma/pdf/k\\_1201c.pdf](http://group.dai-ichi-life.co.jp/dlri/kuma/pdf/k_1201c.pdf)

- (2) 『2011년 기업활동 기본조사』 경제산업성, 1월27일

\*출처:<http://www.meti.go.jp/statistics/tyo/kikatu/result-2/h23sokuho.html>

- (3) 『TPP의 큰 틀 합의와 그 함의』 국제무역투자연구소, 1월26일

\*출처:<http://www.iti.or.jp/flash152.htm>

- (4) 『일본 제조업기업의 해외사업 전개에 관한 조사보고』, 해외투융자정보재단, 1월26일

\*출처:<http://www3.keizaireport.com/jump.php?RID=150750&key=2969>

- (5) 『엔고에 흔들리지 않는 일본을 지향』 미즈호종합연구소, 1월26일

\*출처:<http://www.mizuho-ri.co.jp/publication/research/pdf/insight/gl120124.pdf>

- (6) 『경제재정의 중장기 시산』 국가전략실, 1월25일

\*출처:<http://www.npu.go.jp/policy/policy01/pdf/20120124/h24chuuchouki.pdf>

- (7) 『BPO비즈니스의 전략적 전개』 후지츠종합연구소, 1월21일

\*출처:<http://jp.fujitsu.com/group/fri/downloads/report/research/2012/no382.pdf>

- (8) 『일본경제의 현상과 과제 :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의 관점에서의 시론』 일본 참의원, 1월21일

\*출처:[http://www.sangiin.go.jp/japanese/annai/chousa/rippou\\_chousa/backnumber/2012pdf/20120113149.pdf](http://www.sangiin.go.jp/japanese/annai/chousa/rippou_chousa/backnumber/2012pdf/20120113149.pdf)